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홍영오 · 이훈구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보다 진실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암묵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편견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으로 측정된 편견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상호갈등적인 지역의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편견을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측정하였고, 이 결과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호 대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선호했으며, 이 암묵적 측정치와 명시적 측정치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2와 3에서는 상호 대립되는 지역의 출신자 이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과 명시적 편견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차이가 고정관념의 지식 또는 고정관념적 특성의 지각에서의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특정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고정관념의 지식과 고정관념의 특성 지각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에 대한 편견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진실된 태도는 명시적 측정방법보다는 암묵적인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어야함을 밝혔으며 이 암묵적 편견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이나 특성 지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암묵적 연합검사, 고정관념, 편견

지역감정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이다. 사실 지역감정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물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사회심리학계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지역 감정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신지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은 여전히 존재할 뿐더러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대학생들은 지역 감정에 대해서 단순히 언급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젊은 세대에는 지역감정이 없다고 항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지역민에 대한 편

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즉 타지역민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감은 투표행동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단지 출신지역만을 고려하여 투표하는 양태가 젊은 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가정책(예를 들어 대북정책이나 의약분업 등)에 대한 평가조차 지역별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양상을 띠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보다 진실되게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암묵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편견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으로 측정된 편견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편견

편견이란 우리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단순히 그가 그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토대로 그에 대해 흔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어떤 사회집단이나 사회범주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그 구성원을 단지 그가 그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징적으로(흔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개인적인 특질 또는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단지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집단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이훈구, 1995).

편견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대별된다. 좁은 의미로는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어떤 사회적 집단 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편견은 태도의 세 요소인 신념적 측면, 감정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 중 신념적 측면이 고정관념으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을 지칭한다. 편견의 근원이 되는 감정적 측면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적대적 감정을 지칭한다. 편견의 행동적 측면은 차별로서 투표행동이나 고용, 혹은 일상 생활에서의 친교 행동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한다"(김혜숙, 1999, p.1).

그렇다면 편견은 왜 문제가 되는가? 편견은 주로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견은 개인적 특질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속한 집단에 근거하여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나아가 적대감이나 갈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편견은 집단의 성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를 편파시키고, 그를 차별하며, 그에 대해 냉담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려움까지 초래하여 접촉 자체를 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출신 지역에 따른 편견은 전라도 출신에 대해서 차별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라도 출신에 대한 편견

의 심각성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 한 많은 연구들(김만홍, 1987; 김혜숙, 1988; 나간재, 1991; 장근승, 1981; 최홍국, 1988)에서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타인을 자신의 생활속에서 얼마나 가깝게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주로 대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 연인, 친구, 동업자 등으로 받아들일지를 측정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라도 출신이 가장 차별을 받고 있으며, 차별의 주체가 경상도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을 제외한 전 지역민들이었다. 특히 응답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얻을 수 있었던 김혜숙(1988)의 연구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인관계 거리감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유독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한 거리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경환(1991)은 김혜숙(1988)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비교적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보다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 전라도 출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이보다 훨씬 심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민경환, 1991, p. 180).

본 연구에서는 편견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여 '사회적 집단 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고 정의하고, 암묵적(implicit) 편견과 명시적 편견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암묵적이라는 개념은 보고할 수 없는(unreportable) 이전의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를 기술하기 위해 기억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Roediger, 1989). 즉 명시적 기억은 특정 과거 경험의 의도적 회상에 의해 현재 검사의 수행이 촉진될 때 나타나는 기억인데 반해, 암묵기억은 과거의 특정 경험이 그 경험에 관한 의도적인 회상 없이 현재 검사의 수행을 촉진시킬 때 볼 수 있는 기억이라고 정의한다(Graf & Schacter, 1985).

사회심리학의 고정관념과 편견연구에서 암묵적인 기억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비록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고정관념에서 기억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주로 사회인지를 정보처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들에서 진행되어 왔다(Hamilton & Gifford, 1976; Hamilton & Troler, 1986; Rothbart, Evans, & Fulero, 1979; Talyor, 1981). 이런 연구들은 자유회상, 단서회

상 및 재인과 같은 전통적인 명시적 기억을 측정하여 판단을 하는데 있어 고정관념이 반영되게끔 만드는 부호화(encoding)와 인출(retrieval)에서의 오류를 연구하였다. 이에 비해 암묵적 기억에 대한 연구들은 어휘 판단, 지각 식별, 단어조각 완성, 및 평가적 판단 등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인간의 기억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인지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Cohen, 1981; Greenwald, 1992; Jacoby, Lindsay, & Toth, 1992).

최근에 나온영(1997)은 “Greenwald와 Banaji(1995)가 태도, 자존감, 및 고정관념과 관련된 과정들이 행위자가 내성(內省)하여 알아낼 수 없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인 기존의 연구들을 ‘암묵적 사회 인지(implicit social cognition)’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개관하였다”고 밝히고 암묵적 인지과정이 ‘과거 경험의 흔적이 어떤 수행에 영향을 주되, 그렇게 영향을 준 이전의 경험을 자기보고나 내성법으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의 인지과정’이라고 정의된다”는 Greenwald와 Banaji(1995)의 주장을 제시하며,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도 이러한 암묵적 인지과정이 상당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나은영, 1997, p. 130). Banaji와 Greenwald(1994)는 고정관념의 분석에서 의식적인 인지과정과 무의식적인 인지과정을 구분하여, 고정관념적 신념, 편견적 태도 및 차별적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암묵적 고정관념화와 편견을 연구하였다.

명시적 태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거나 공개적으로 진술되는 태도이나, 암묵적 태도는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태도로써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지 않을 때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두 태도가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이 어떤 태도는 정확히 보고할 의도가 없기(unwilling)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태도는 의도적으로 숨기려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정확히 보고할 수 없기(unable)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자신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명시적으로 보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묵적 인지과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기보고법에 의한 태도 측정치보다는 암묵적인 방식에 의한 간접적인 태도 측정치가 보다 솔직한 태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인 태도 측정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나은영, 1997; Banaji & Greenwald, 1994). 편견 역시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진실된 평가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밝히거나 고정관념이 인물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즉 인지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들에서 편견 수준에 따라 고정관념을 활성화하거나 고정관념적으로 지각하는데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기보고적인 방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동기라든가 자기-제시적(self-presentative) 동기 등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측정방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편견 표현 방식의 변화

편견에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편견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과 이론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들 이론들은 주로 미국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종 갈등과 성편견에 대한 조사 연구들에 근거한 이론들이다. 대표적인 이론은 상징적 인종차별주의적 접근(Symbolic racism, Sears & Kinder, 1971), 혐오적 인종차별주의적 접근(Aversive racism, Gaertner & Dovidio, 1986), 그리고 양가감정적 인종차별주의 접근(Ambivalence racism, Katz & Hass, 1988)이다.

194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인종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의 경향성에 대해 여러 연구들에서 행해진 여론조사결과, 흑인에 대한 태도와 고정관념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경제적 지위, 교육적 성취 및 개인적 복지수준에서 평등정도는 태도와 고정관념의 변화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태도조사에서의 편견의 정도와

평등에 대한 실질적 변화는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Gaertner & Dovidio, 1986). 즉 사회적 불평등이 노골적인 편견이 아닌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편견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견은 인지적 과정(범주화)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편견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에도 불구하고 편견적 행동은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사회적 범주화과정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편견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사회의 흑백간의 감정 대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백인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설명은 개인적인 신념 또는 가치와 행동간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상징적 인종차별주의이론(Kinder & Sears, 1981; Sears, 1988)과 현대 인종차별주의이론(Modern racism theory, McConahay, 1986)은 편견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이론들은 당시의 조사 자료에서 편견이 많이 줄었다는 결과를 의심하였다. 이전의 편견은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구식의(old-fashioned)' 인종차별주의로써, 이러한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흑인에 대한 반감과 전통적인 미국인의 도덕적 가치가 혼합되어서 개인적 가치 및 감정과 새로이 제기되는 사회적 규범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상징주의적 또는 현대 인종차별주의 이론가들에 따르면, 조사 연구는 전형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인종차별주의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조사 연구로는 간접적이고 은밀하며 미묘한 현대의 편견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주의 또는 현대의 인종차별주의 이론가들의 주요한 연구 노력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종적 편견을 다루는 새로운 태도 측정치를 개발하고, 이 새로운 측정치의 예측 타당도와 전통적인 질문지의 예측 타당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Kinder & Sears, 1981; McConahay, 1986).

다음으로는 혐오적 인종차별주의(aversive racism, Gaertner & Dovidio, 1986) 이론으로써, "많은 백인들이 인종평등주의적 가치를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나타나게 되는 편견의 형태이다". 이들은 편견의 희생자에게 감정이입되어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소수인종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게 될 때 혐오적 감정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소수인종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회피하게 된다". 혐오적 인종차별주의자는 평등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흑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신념을 잘 드러내지 않고 미묘하고 간접적인 편견의 형태로 표현한다. 즉 "이들은 인종평등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표방하고자 하여 드러내 놓고 차별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정당화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행동을 나타낸다"(김혜숙, 1999. p.18). 예를 들어, 만약 여러 인종들이 상호작용 하는 상황에서, 타 인종에 대해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편견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편견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을 자신의 편견이외의 다른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면 편견을 그대로 표현하지만 편견 이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 편견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은 편견적이지 않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평등주의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 또한 편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주의적 양가감정 이론(Racial ambivalence theory, Katz & Hass, 1988; Katz, Wackenhut, & Hass, 1986)으로써, 양가감정적인 인종차별주의자는 흑인에 대해 평등주의 가치에 의한 긍정적인 감정과 청교도적인 직업윤리에 의한 개인주의적 가치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감정(근면 성실, 절제를 강조하나 흑인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수집단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의 양극으로 극화되어 그 변산이 매우 커진다. 예를 들어, 친절한 흑인을 만났을 때,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되고 흑인에 대한 행동은 친절한 백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이 된다. 인종간 양가감정은 상황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의

방향으로 인종간 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네 이론은 각각 개인 내적으로 평등주의라는 이상과 흑인에 대한 학습된 부정적인 감정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편견을 설명할 때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두던 것을 개인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 감정으로 대치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이론들은 평등주의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은 개인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편파적인 태도와 행동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고 미묘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을 자신의 편견 탓으로 귀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평등에 대한 신념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간의 개인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인종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느끼는 것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종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Weitz(1972)는 실험참여자들 이 사전에 자신은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의 측정치를 통해서 그 진술이 거짓임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탐지하였다. Sigall과 Page(1971)에서는 피험자들이 '진실한' 태도가 드러난다고 가정된 조건(bogus pipeline)에서 인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가 그와 같은 조건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에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인종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Gaertner(1973)는 흑인과 백인의 목소리를 내는 실험협조자가 전화로,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고장나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전인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다. 실험협조자는 전화를 잘못 걸었지만 이 전화는 공중전화이고 또한 마지막 동전이라며 도움을 청했다. 그는 뉴욕시에 있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측한 바와 같이, 공화당원들은 흑인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 때보다 백인의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을 때 더 많이 도와주었다(95% 대 65%). 민주당원은 흑인과 백인 목소리에 대한 반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75% 대

85%), 백인 목소리일 때(3%)보다 흑인 목소리였을 때(19%)에 자동차 고장에 대해서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더 많이 끊어버렸다. 즉 공화당원들로부터는 직접적인 인종편파를 볼 수 있었으며, 민주당원으로부터는 간접적이거나 회피적인 인종편파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실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측정방법이 아니라 암묵적인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암묵적 편견 측정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의 편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개적으로 표현되거나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외집단 차별에 관심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년 동안에는 평등주의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왜곡하지 못하는 편견의 정도를 알아내기 위한 암묵적인 측정치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측정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첫째 유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반응하고자 하는 동기의 영향을 최소화한 설문지로서 현대적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척도(Glick & Fiske, 1996; McConahay, 1986; Pettigrew & Meertens, 1995)가 그것이다. 설문지의 항목들은 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작성되어 그 항목에 동의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루어졌다. 현대 인종차별주의 척도는 McConahay(1986)가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수많은 항목들을 몇 년간에 걸쳐 검증한 후에 개발한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등이다. 이 척도는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식의 인종차별주의(old-fashioned racism) 척도는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예를 들면, 인종간 결혼 반대, 인종통합정책 반대, 수입과 교육수준이 비슷하다하더라도 흑인 이웃은 반대 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이 척도는 위와 같이 미묘하고 은밀한 형태의 인종차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McConahay, Hardee, 및 Batts(1981)는 이 두 척도를 비교한 실험을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현대 인종차별주의 척도의 문항들이 인종차별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백인 남자 대학생들에게 '현대적인 인종차별주의(modern racism)'와 '구식의 인종차별주의(old-fashioned racism)'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흑인 여자 실험자나 백인 여자 실험자가 주관하였다. 실험자는 학생들이 척도를 완성하고 실험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는 학생들만을 남겨두고 실험실에서 나갔다. 실험의 결과, 구식의 인종차별주의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백인 실험자보다 흑인 실험자가 주관할 때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을 더 의식하여 익명으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인종차별주의 척도에서는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지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자의 인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현대적 인종차별주의 척도에서는 문항들이 인종차별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흑인 실험자가 주관해도 인종차별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척도 역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zio, Jackson, Dunton, 및 Williams(1995)의 연구에서 실험 주관자의 인종에 따라 반응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즉 Fazio 등(1995)의 연구 3에서 MRS는 여전히 반응적인 측정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학기초 대규모 설문연구에서 MRS가 높게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2-3개월 후에 실험실에서 MRS를 재 실시하였다. 이때, 실험자의 인종을 달리 하여 흑인 실험자와 백인 실험자가 실험을 주관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편견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이 백인 실험자가 실험을 주관했을 때는 설문조사 때와 편견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나, 흑인 실험자가 실험을 주관할 때는 편견의 정도가 매우 줄어들었다. 또한 2-3개월 전의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도 실험자가 백인이었을 때는 상관계수가 .68이었으나, 실험자가 흑인이었을 때는 상관계수가 .29로 낮아졌다. 학생들은 백인 실험자에 비해 흑인 실험자와 상호작용할 때는 편견을 표현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학생들은 MRS 척도의 항목이 인종문제를 함축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동기화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잘 두지 않거나 잘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소수집단 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측정치나 생리적 측정치를 이용한다. 비언어적 측정치는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키거나 눈 접촉을 피한다거나 말 실수가 많은 것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측정한다.

세 번째 유형은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집단간 편과와 관련하여 내외집단 성원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추상화의 정도에 근거한 측정치이다(Maass & Arcuri, 1996; Von Hippel, Sekaquaptewa, & Vargas, 1995, 1997). 이 측정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내집단의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는 외집단의 행동은 보다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바람직하지 않는 내집단의 행동과 바람직한 외집단의 행동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즉 집단간 행동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Von Hippel et al., 1997).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자들은 범주나 집단 명칭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실험을 이용하였다. 특히 범주 접화 이후의 반응시간 측정치가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Devine, 1989; Fazio, et. al., 1995; Perdue, Dovidio, Gurtman, & Tyler, 1990). Fazio(1995)는 태도란 기억 속에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연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태도는 더욱 강하고, 더욱 빨리 행동반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Fazio 등(1995)은 백인과 흑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인종에 대한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형용사 12개와 매우 부정적인 형용사 12개를 제시받고는 그 단어가 매우 긍정적인지 매우 부정적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피험자들은 얼굴을 학습하는 '탐지과제'의 맥락에서 315ms동안 흑인 또는 백인의 사진을 본 직후, 형용사의 의미를 가능하면 빠르게 판단해야 했다. 주 측정치는 형용사를 판단하는 시행에 앞서 사진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의 형용사 판단 시간과 얼굴 사진이 제시되고 난 후의 형용사 판단 시간의 변화량이었다. 반응시간이 더 빠르다는 것이 인종에 대한 태도의 측정치였다. 따라서, 반응시간이 빠를수

록 태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백인 피험자들은 흑인 얼굴에 비해 백인 얼굴이 점화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적인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백인 얼굴에 비해 흑인 얼굴이 점화되었을 때 더 빨랐다. 즉 백인 피험자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흑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비해, 흑인 피험자들에게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단어가 긍정적이었을 때는 백인 얼굴에 비해 흑인 얼굴에 점화된 직후에 더 빨랐던 반면, 단어가 부정적이었을 때는 흑인 얼굴에 비해 백인 얼굴이 제시된 직후에 더 빨랐다. Fazio 등(1995)은 이 결과를 통해, 인종 태도는 인종집단 개개 성원에 대한 평가적 연합으로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ovidio, Kawakami, Johnson 및 Howard (1997)들도 흑인에 대한 백인의 암묵적 태도를 연구하여,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암묵적인 부정적 인종 차별적 태도를 실증하였다. 이들 역시 어휘를 이용하여 점화를 한 것이 아니라, 백인과 흑인의 사진을 점화 자극으로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의 연구(Gaertner & McLaughlin, 1983)에서 점화자극으로 사용된 'White'나 'Black'이 백인과 흑인을 나타내기보다는 흰색과 검은색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의 결과, 부정적 표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백인 얼굴에 점화되었을 때보다 흑인 얼굴에 점화되었을 때 더 빨랐던 반면, 긍정적 표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은 흑인 얼굴에 점화되었을 때보다 백인 얼굴에 점화되었을 때 더 빨랐다.

본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Greenwald, McGhee, 및 Schwartz (1998) 등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의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측정하고 이를 명시적 편견과 비교하였다. Greenwald 등(1998)이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단어가 제시되면 오른쪽 키를 누르고, 부정적인 단어가 제시되면 왼쪽 키를 누르게 훈련시킨 후, 같은 방식으로 긍정적인 대상이 제시되면 오른쪽 키를 누르게 하고 부

정적인 대상이 제시되면 왼쪽 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또한 어느 경우에는 훈련할 때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대상인 경우 왼쪽 키를, 부정적인 대상인 경우 오른쪽 키를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이 두 과정을 통합하여, 긍정적인 단어 또는 긍정적인 대상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부정적 단어 또는 부정적인 대상이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게 하거나 긍정적인 단어 또는 부정적인 대상이 나오면 오른쪽 키를, 부정적인 단어 또는 긍정적인 대상이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게 하였다. 즉 정서가 유사한 대상에 동일한 키를 부여하였을 때는 반응시간이 빨라지며, 반대의 키를 부여하였을 때는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양립하지 않는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이 양립 가능한 과제에 대한 반응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지게 되므로 그 차이로써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양립 가능한 조합과 양립 불가능한 조합과에 응답하는 반응시간의 차이를 Greenwald 등(1998)은 IAT효과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지역 편견의 강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IAT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IAT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 속에서 강하게 지니고 있는 태도나 고정관념일수록 더욱 자동적으로 잘 떠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동적 활성화 과정을 반응시간으로 포착함으로써 태도나 고정관념, 또는 자아개념의 강도를 파악하려는 도구이다"(나은영, 1999. p.65).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타지역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로 암묵적인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여 명시적인 편견측정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명시적 편견과 차이가 나는 암묵적 편견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 또는 고정관념적 특성의 지각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본 실험은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지역간에 갈등이 심한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두 지역간의 감정이 가장 부정적이고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암묵적 연합검사서 경상도와 전라도는 지역에 대한 갈등이 강하여 자신의 출신지를 상대 지역보다 더 좋게 지각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지를 상대 지역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자신의 출신지역과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자신의 출신지역과 갈등적인 출신지역이 부정적인 단어와 조합될 때가 자신의 출신지역과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자신의 출신지역과 갈등적인 출신지역이 긍정적인 단어와 조합될 때보다 자극관별의 반응시간이 더 빠를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방 법

실험참여자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의 수강생 30명이 참여하였다. 사전 검사를 통하여 전라도 출신 대학생과 경상도 출신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교양과목 수강의 필수과정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도구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 측정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를 위해서 먼저, 호남과 영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단어 각각 13개와 유쾌하거나 불쾌한 의미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각각 25개를 뽑았다(부록 참조). 영남과 호남을 상징하는 단어는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이들에게 영남과 호남을 상징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총 82명의 대학생들로부터 상징어를 수집하였고, 이 상징어를 45명의 다른 대학생들에게 다시 영남과 호남으로 분류하게 하여 90% 이상이 정확하게 분류한 상징어를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단어들은 정당이나 정치인, 그리고 운동선수 이름이 많이 나왔으나, 이들 이름은 정치적 성향이나 운동에 대한 호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배제하고 지명을 주로 포함하였다. 이들 지명은 참여자들이 분명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친숙한 지명만을 선택하였다. 양 지역간의 단어의 내용(예를 들어, 지명

이나 기업명 등)과 철자 수를 상응하게 만들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 또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Greenwald 등(1998)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되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애매한 단어는 보다 명확한 단어로 대체하였다. 또한 연세대 사전편찬실(1991)에서 제작한 단어 총집을 참고하여 단어의 빈도수가 매우 적은 단어(빈도수 10이하, 예를 들어, 투옥, 애무)를 제외하였다.

지역편견척도

명시적 편견은 안상수(1999)가 개발한 지역편견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라도에 대한 편견만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McConahay 등(1981)의 현대 인종차별주의 이론과 Sears(1988)의 상징적 인종차별주의 이론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분석에 사용되는 20개의 문항과 10개의 허구 문항을 포함하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상에 각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하였다.

장치

실험은 컴퓨터(펜티엄 II)를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superlab pro를 이용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약 60cm의 거리를 두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였으며, 왼손(자판의 A)과 오른손(자판의 L)을 자판에 올려놓고 반응하였다.

절차

실험은 개인 각각의 컴퓨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실험의 목적은 컴퓨터 화면상으로 제시되는 시각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을 알아보는 것으로써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말해주고,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정보가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가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리고는 본 실험이 그와 같이 빠르게 제시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써,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중요하므로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였고, 크게 다섯

번의 상이한 정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과제에 숙달되기 위해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제시되게 되는데, 남자의 이름이 제시되면 오른쪽 키를, 여자의 이름이 제시되면 왼쪽 키를 누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① 전라도와 경상도를 상징하는 명칭의 변별 과제, ② 특성 변별과제, ③ 특성변별과 명칭변별의 조합과제, ④ 특성변별과제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좌우 위치를 역으로 한 전라도-경상도 상징어에 대한 명칭의 변별 과제, ⑤ 2번과 4번의 조합과제의 순으로 다섯 단계를 실시하였다. 단 과제 1과 4의 순서는 역균형화시켰다. 그 이유는 특정지역이 유쾌한 쪽 또는 불쾌한 쪽과 먼저 결합되면서 야기되는 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유쾌-불쾌 차원의 과제 2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을 역균형화시켰다. 그 이유는 오른손이 더 익숙하여 반응 시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정확한 자판 외에 다른 자판을 누르면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옳은 자판을 눌러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또한 두 지역의 상징어에 대한 반응이 틀리면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지 않고 두 지역의 상징어를 옮겨 판단해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갔다. 이 오류는 기록되어 분석할 때 많은 오류를 범한 참가자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두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에 대한 도식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 측정이 끝나면, 개인의 출신지 및 주 성장지역을 재확인하고 지역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였다. 명시적 태도는 지역편견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 참여자들에 대한 측정이 끝나면, 예정된 실험이 모두 끝난 후에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실험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 때까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전체 실험이 끝난 후에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문을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암묵적 편견의 효과

먼저 전라도 또는 경상도를 나타내거나 상징하는 명칭과 긍정적인 단어 또는 부정적인 단어와의 조합순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 상징어의 조합순서에 따른 반응시간의 차이를 반복측정검증하였다. 이때 반응오류율이 많은 참가자 3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경상도 출신자들에 있어 자극 조합의 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라도 출신자에 대한 자극 조합의 순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상징어의 조합순서는 무시하고 자료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연구 1의 자료는 실험참여자들의 출신지에 따라 지역에

단계	1	2	3	4	5
과제명	최초의 표적개념변별	연합된 특성변별	최초의 조합과제	역으로 된 표적개념변별	역으로 된 조합과제
과제 지시	* 호남상징어 영남상징어 *	* 유쾌함 불쾌함 *	* 호남상징어 * 유쾌함 영남상징어 * 불쾌함 *	호남상징어 * * 영남상징어	호남상징어 * * 유쾌함 * 영남상징어 불쾌함 *
자극 예	부산 ◦ ◦ 광주 ◦ 전주 울산 ◦ 대구 ◦ ◦ 해태	◦ 명예 ◦ 독약 ◦ 슬픔 ◦ 선물 ◦ 재앙 ◦ 행복	◦ 전주 ◦ 회망 ◦ 대구 ◦ 악마 ◦ 낙동강 ◦ 기적	◦ 광주 ◦ 롯데 ◦ 전주 ◦ 부산 ◦ 남원 ◦ 포항	◦ 평화 판소리 ◦ ◦ 오염 ◦ 부산 ◦ 회망 ◦ 광주

그림 1.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에 대한 도식

(Greenwald et al., 1998, p. 1465의 그림에 영호남에 대한 상징어를 대입시킴). '과제 지시' 행의 * 표시는 반응해야 할 방향(왼쪽 또는 오른쪽)을 나타내고, '자극 예' 행의 ◦ 표시는 옳은 반응을 나타냄.

대한 반응시간을 반복측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출신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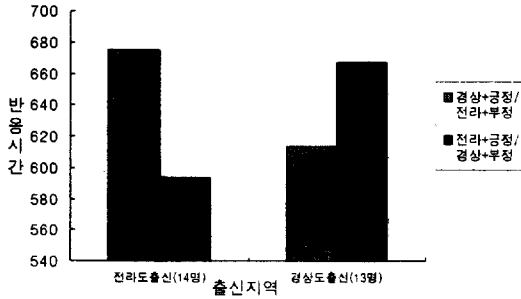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참여자의 출신지역별 영호남과 긍정적 단어 또는 부정적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ms)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상도 출신자들은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평균 반응시간=613.91, 표준편차=80.52)가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평균 반응시간=667.25, 표준편차=85.47)보다 반응시간이 더 빨랐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12)=-2.4, p < .05$.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자들은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평균 반응시간=593.6, 표준편차=80.27)가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평균 반응시간=674.77, 표준편차=81.56)보다 반응시간이 더 빨랐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13)=5.74, p < .001$.

그러나, 두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 점수의 평균이 극단적인 점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측정치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즉, 참여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을 더 선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호하는 극단적인 한 두명 때문에 선호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과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과의 차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상도 출신자들은 모두가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가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전라도 출신자들은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가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보다 반응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1명만이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극단적인 점수에 의한 왜곡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인 이 1명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태도와의 비교

영호남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태도측정치와 명시적 태도 측정치, 즉 지역편견척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의 측정치는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에서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전라도 상징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을 뺀 수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양수가 된다. 지역편견척도는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편견만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출신자의 자료만이 분석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지역에 대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태도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r=.16, p < .61$. 이 결과는 참여자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암묵적 편견에서는 집단간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명시적 태도에서는 출신지역에 대한 편견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상호 대립되는 집단에 속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 대립되는 집단의 성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내집단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외집단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이 더 친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상호 갈등적인 집단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호남 출신이 아닌 제 3의 지역 출신인들을 대상으로 영호남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측정하여 명시적 편견의 측정치와 비교하고, 아울러 이 암묵적인 편견의 차이가 호남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실험참여자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의 수강생 60명(남녀 각각 30명씩)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학기초에 여러 유형의 인물에 대한 의견과 인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암묵적인 편견이 측정된 전라도 출신과 경상도 출신 이외의 대학생들이었다. 암묵적 편견 측정은 설문조사 후 한 달이 지난 후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는 태도를 측정하고 한달 후에 실시되었다. 사전 측정을 통하여 경상도에 비해서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인 참여자 30명(남녀 각각 15명)과 경상도와 별 차이가 없거나 경상도에 비해 긍정적인 참여자 30명(남녀 각각 15명)이 참여하였다. 경상도에 비해서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인 참여자는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전라도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된 과제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이 전라도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된 과제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보다 더 빠르며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참여자들이었다. 이에 비해 경상도와 별 차이가 없거나 경상도에 비해 긍정적인 참여자는 전라도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된 과제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이 전라도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고 경상도와 부정적인 단어가 조합된 과제에 대한 평균 반응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더 느린 참여자들이었다. 모든 실험참여자

들은 교양과목 수강의 필수과정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사전 조사

사전조사는 학기 초에 여러 유형의 인물에 대한 인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써 실시되었다. 지역감정 또는 지역에 대한 편견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출신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유형(동성애자, 교수, 연예인, 고대 출신 등)을 섞어서 측정하였다. 이 조사에 지역편견척도가 포함되었다.

절차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실에 오면 각자에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연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써 실시되나, 여러분들에게는 무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지역 중 특정지역만이 제시될 것이라고 지시를 주었다. 여러분이 기술해야할 지역은 여러분 개인에게 나누어 준 용지에 표시되어있다고 지시하였다. 각 개인에게는 모두 전라도만이 제시되었고, 각자에게 제시된 지역의 고정관념을 생각하는데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민에 대해서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단지 알고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하였다. 즉 “* * 지역민은 어떠한 하더라”와 같이 주위 사람에게서 널리 퍼져있는 고정관념의 내용을 쓰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결과 및 논의

암묵적 편견과 명시적 편견과의 비교

영호남에 대한 암묵적 편견 점수와 명시적 태도 측정치, 즉 지역편견척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암묵적 편견 점수는 전라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에서 경상도 상징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조합되었을 때의 반응시간을 뺀 수치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양수가 된다. 상관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암묵적 편견 측정치와 지역편견척도간에는 $r=.407$ 의 상관이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예상과 달리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여 태도에 따라 나누어 분석

을 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에 대해서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이었던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상관관계가 $r=.129$ 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p < .497$. 하지만 전라도에 대해서 암묵적 편견이 긍정적이었던 참여자들에게서는 상관관계가 $r=.545$ 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p < .01$. 즉 전라도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암묵적 편견 측정치와 명시적 측정치간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암묵적 편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참여자들은 전라도 출신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명시적 측정치에서의 태도 점수는 더 낮았다.

전라도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지식

실험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기술된 특성들을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본 실험자가 참여자들의 반응을 참여자들의 암묵적 편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류하였고, 다른 대학생이 역시 참여자들의 태도를 모른 채 다시 똑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특성들을 분류하였다. 두 분류에 대한 일치도는 약 85%이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두 분류자가 다시 상의하여 재분류하였다. 분류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분류 결과를 보면, 전라도 출신에 대한 기술은 ‘피해의식이 강하다’, ‘배타적이다’, ‘뒤끝이 안 좋다’, ‘단결력이 강하다’와 관련된 특성이 많았으며, 부정적인 특성이 많았다.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전라도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먼저 암묵적 편견에 따른 고정관념적 특성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전라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 30명중 20%(6명) 이상이 기술한 특성의 범주는 14개였으며, 그 중 긍정적인 특성은 단지 세 가지(생활력이 강하다, 음식이 맛있다, 예술적이다)뿐이었다.

이에 비해 전라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경상도와 차이가 없는 참여자들(30명) 중 20%(6명) 이상이 기술한 특성의 범주는 15개였으며 그 중 긍정적인 특성은 두 가지뿐(생활력이 강하다, 음식이 맛있다)이었다. 즉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라도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특성이 대부분이었다. 참여자들 중 20% 이상이 기술한 특성 전체에 대하여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표 1. 암묵적 편견에 따라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유기술한 참여자들의 비율(%)

고정관념	편견	
	부정적	비부정적
피해의식이 강하다	.73	.73
단결력이 강하다	.70	.63
신뢰할 수 없다(배신)	.50	.40
배타적이다	.47	.50
뒤끝이 안 좋다	.40	.30
반항적이다	.37	.23
이기적이다	.37	.30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33	.30
고집이 세다	.33	.40
역세다	.30	.27
생활력이 강하다	.27	.27
음식이 맛있다	.27	.27
예술적이다	.23	.17
외곬수	.17	.23
독하다	.20	.20
홍분을 잘한다	.16	.16
사교적이다	.16	.16
범죄자가 많다	.13	.07
한이 많다	.10	.20

기술한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제시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으나, 역시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기술한 고정관념의 비율은 차이가 없었다.

미국사회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한 Devine(1989)의 연구에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 수준에 따른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지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도 전라도 출신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의 차이에 관계없이 고정관념적 지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암묵적인 편견과 명시적 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전라도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암묵적인 편견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인 지역편견 측정치간에 상관이 없었던데 반해, 전라도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 측정치간에 상관

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암묵적인 측정치에서 전라도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일수록 명시적인 편견척도는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전라도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쪽으로 반응하려는 동기 때문에 명시적 측정에서는 타집단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던 반면, 전라도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타집단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긍정적인) 태도를 솔직히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목적은 암묵적인 편견의 차이가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지식의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암묵적인 편견에 따라 전라도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지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편견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구 3

우리나라에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 지역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고 있다. 연구 2의 결과에서도 암묵적 편견에 상관없이 전라도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지역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그 특성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이다.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은 같다 하더라도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정관념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집단에 대한 특성 지각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관념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집단 성원의 % 추정치, 즉 각 지역민의 몇 할 정도가 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추정치가 고정관념적 특성의 수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고정관념의 내용을 더 수용할수록 특정 집단의 성원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비율이 더 클 것이다. 특정 집단의 고정관념의 내용에 대한 지식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에 대한 특성의 지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암묵적 편견에 따른 집단간 특성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암묵적 편견에서의 차이가 고정관념적 특성의 지각 차이 때문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앞의 연구 2에서 논의한 바대로 암묵적인 편견에 관계없이 고정관념을 알고 있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 태도에 따라 각 지역민의 특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가법을 이용하였다. 백분율 평가법은 각 지역민의 몇 % 정도가 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방법

실험참여자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의 수강생 5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인 연합검사를 통해서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인 참여자 26명(남녀 각각 13명)과 경상도와 별 차이가 없거나(19명, 남자 11명, 여자 8명) 경상도에 비해 긍정적인 참여자 7명(남자 2, 여자 5명)이 참여하였다. 경상도와 별 차이가 없거나 전라도에 대해 긍정적인 참여자들을 합쳐서 분석하였다.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인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구분은 연구 2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실험참여자들은 교양과목 수강의 필수과정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자극재료

백분율 평가법에 제시된 고정관념은 연구 2와 김혜숙(1988), 이진환(1988), 한규석(1992) 등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응답한 특성과 함께 경상도에 대한 특성을 포함하였다. 경상도민에 대한 특성을 포함시킨 이유는 전라도민에 대한 특성만을 평가한다면 이를 인식하여 모든 특성에서 비율이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절차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실에 오면 각자에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연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써 실시되나,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지역 중 특정지역만이 제시될 것이라고 지시를 주었다. 여러분이 추정해야 될 지역은 여러분 개인에게 나누어 준 용지에 표시되어 있다고 지시하였다. 각 개인에게는 모두 전라도만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추정해야 될 내용은 각자에게 제시된 지역의 고정관념을 각 지역민의 몇 % 정도가 갖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암묵적인 편견에 따른 각 고정관념에 대한 비율의 평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전라도민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에 따른 고정관념 추정비율(%)의 평균

특 질	편견	
	부정적	비부정적
단결력 강한	78.8	75.0
피해의식의	74.2	72.7
한 많은	74.2	72.7
생활력이 강한	72.3	66.5
음식 잘하는	69.3	65.8
배타적인	69.2	65.4
잘 속이는	63.9	63.1
인정많은	63.8	63.1
고집센	61.5	61.1
이중적인	60.8	59.2
가정적인	60.0	5.19
예술적인	58.9	50.8
억센	58.9	55.4
사교적인	56.5	53.5
이기적인	55.8	45.4
과격한	54.6	48.9
약삭빠른	51.2	44.6
믿지 못하는	50.4	49.2
뒤끝 나쁜	49.6	42.7

이 고정관념적 특질 전체에 대하여 암묵적 편견에 따른 차이 검증은 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추정비율의 평균은 61.6%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추정비율의 평균

은 56.6%였다. 이 평균치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경향성이 나타났다, $t(50)=1.75, p < .086$.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나 어느 특성도 암묵적 편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이 고정관념적 특질 각각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암묵적 편견에 따른 다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배타적인’, ‘뒤끝 나쁜’, ‘억센’, ‘약삭빠른’, ‘이기적인’, ‘과격한’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 ‘예술적인’, ‘생활력 강한’, ‘음식 잘하는’ 등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추정비율의 평균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으나, ‘이기적인’이라는 특성에서 암묵적 편견에 따른 차이가 경향성을 나타냈을 뿐, $F(1,50) = 3.26, p < .077$, 어느 특성도 암묵적인 편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암묵적인 편견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라도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과 긍정적인 특성 모두에서 높게 추정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암묵적 편견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게 추정하리라 예상했으나 암묵적 편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암묵적 편견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예상과 달리, 백분율 평가법의 부정적인 특성에서 암묵적인 편견에 따른 고정관념 추정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 백분율 평가법이 고정관념의 수용 정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역시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전라도에 대한 고정관념 중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불신과 관련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관련된 고정관념적 특질(믿지 못하는, 뒤끝 나쁜) 대한 비율이 다른 특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기 때문이다. 둘째, 고정관념적 내용에 대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암묵적인 편견에 상관없이 집단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 동일하기 때문일 수 있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내용에 대한 지식과 집단의 특성에 대한 지각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간 갈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인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총 합 논 의

본 연구는 암묵적 연합검사로 측정한 암묵적 편견과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편견간의 관계를 밝혀서 보다 진실된 편견 측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명시적 측정 방법의 한계를 인식하여, 반응편파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동기의 영향이 배제된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암묵적인 연합검사를 이용하여 암묵적인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상호 갈등적인 지역의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암묵적 편견을 측정한 결과, 상호 대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신이 속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선호했으며, 이 암묵적 측정치와 명시적 태도간에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명시적 측정치는 편견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의 내집단 편파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정체감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암묵적 편견 측정방법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타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잘 측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2와 3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이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측정하고, 이 암묵적 편견의 차이가 전라도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 및 특성 지각의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전라도에 대한 암묵적 편견의 차이에 따라 고정관념의 지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백분율 평가법에 의한 고정관념적 특성 추정에서도 편견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즉 암묵적인 편견의 차이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내용에 대한 지식과 특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미묘한 문체나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편견이나 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진실된 편견이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보다는 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포함된 편견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자기보고식의 명시적 편견이 아닌 암묵적인 편견을 측정하였고, 이 암묵적 편견 측정치와 명시적 측정치간에 상관성이 없음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편견에 대한 암묵적인 측정치와 명시적인 측정치간의 관계는 집단에 대한 차별이 규범적으로 용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랐다. Franco와 Maass(1999)의 연구에서 회교근본주의자와 같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의 암묵적 측정치와 명시적 측정치간에 상관성이 있었으나, 유태인과 같은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의 암묵적 측정치와 명시적 측정치간에 상관성이 없었다. 회교근본주의자에 대해서는 편견적 반응을 억제해야 할 특별한 규범이 없는 집단이므로 그 외집단에 대한 반감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유태인에 대해서는 편견적 반응을 억제해야 할 규범이 있어서 반감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억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명시적 척도인 지역편견척도와 상관성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직접 드러내는 태도와는 달리 실제 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편견수준이나 태도를 명시적 측정치가 아닌 암묵적 측정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나은영(199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겉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는 '고맥락 의사소통'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일수록 명시적 측정치에만 의존하는 방법이 진실을 밝히는데 더욱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속으로 지니고 있는 것간에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에서는 지역에 대한 편견은 암묵적 연합검사와 같은 간접적 태도측정 방법이 유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은영, 1999, p. 63).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편견의 차이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의 지식과 특성 지각의 차이 때문인지를 알아보았으나 이 편견의 정도 구분이 특정 지역민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사람을 합쳐서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간의 갈등은 호남 대비호남의 구도가 강력하여, 전라도 출신을 제외하고 전라도 출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출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비교 및 긍정적 태도보유자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사람들간의 비교연구가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 김만홍(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23-169). 서울 : 성원사.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33.
- 나간재(1991). 지역인의 사회적 거리감, 지역감정연구(pp.191-211). 서울: 학민사.
- 나은영(1997). 역고정관념의 암묵적 활성화와 인상형성: 남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1(2), 129-145.
- 나은영(1999). 태도강도 개념의 다차원성과 그 측정방법. 현대사회심리학연구(pp.39-75), 서울: 시그마프레스
- 민경환(1991). 사회심리적으로 본 지역감정. 지역감정연구(pp.171-190). 서울: 학민사.
- 안상수(1999). 지역 - 범주 점화과제에서 암묵적 고정관념 활성화와 억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연세대 사전편찬실(1991). 한국어 사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 이진환(1988). 부산지역인의 타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171-220). 서울 : 성원사.
- 이훈구(1995). 사회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근승(1981). 지역편견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홍국(1988). 한국인의 투표성향과 지역감정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한규석(1992). 측정방법의 비교를 통한 지역 고정관념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2), 168-185.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4). Implicit stereotyping and prejudice. In M. P. Zanna & J. M. Olson (Eds.), *The psychology of prejudice: The Ontario Symposium*(Vol. 7, ch. 3, pp. 55-7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aji, M. R., & Greenwald, A. G., (1995). Implicit gender stereotyping in judgments of f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81-198.
- Cohen, C. E. (1981). Person categories and social perception: Testing some boundaries of the processing effects of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41-452.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142-1163.
- Dovidio, J., Kawakami, K., Johnson, C., & Howard, A. (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510-540.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013-1027.
- Franco, F. M., & Maass, A. (1999). Intentional control over prejudice: when the choice of the measure matt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469-477.

- Gaertner, S. (1973). Helping behavior and discrimination amo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335-341.
- Gaertner, S.,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61-89). New York: Academic Press.
- Gaertner, S., & McLaughlin, J. (1983). Racial stereotypes : Associations and ascrip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3-30.
- Gilbert, D. T., & Hixon, J. G. (1991). The trouble of thinking: Activation and application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09-517.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raf, P. & Schacter, D. (1985). Implicit and explicit memory for new association in normal and amnesic subjec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501-518.
- Greenwald, A. G. (1992). New Look 3: Unconscious cognition reclaimed. *American Psychologist*, 47, 766-779.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Hamilton, D. L., & Gifford, R. K. (1976). Illusory correlation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 cognitive basis of stereotype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392-407.
- Hamilton, D. L., & Trolie, T. K. (1986).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 An overview of the cognitive approach. In F. Dovidio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127-163). New York and Orlando, FL : Academic Press.
- Jacoby, L. L., Lindsay, D. S., & Toth, J. P. (1992). Unconscious processes revealed: A question of control. *American Psychologist*, 47, 802-809.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atz, I., Wackenhut, J., & Hass, R. G. (1986). Racial ambivalence-amplification theory of behavior toward the stigmatized.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103-117). Monterey, CA: Brooks/Cole.
-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14-431.
- Maass, A., & Arcuri, L. (1996). Language and stereotyping. In C.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193-22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cConahay, J. B. (1986). Modern racism, ambivalence, and the modern racism scale, In J. F. Dovidio &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 91-125). New York: Academic Press.
- McConahay, J. B. Hardee, B. B., & Batts, V. (1981). Has racism declined in America? It depends on who is asking and what is ask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5, 563-579.
- Perdue, C. W., Dovidio, J. F., Gurtman, M. B., & Tyler, R. B.(1990). "Us" and "Them":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process of intergroup bia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475-486.
- Roediger, H. L. (1989). Implicit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9, 1043-1056.
- Rothbart, M., Evans, M., & Fulero, S. (1979).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Memory process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ereotyp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343-355.
- Sears, D. O. (1988). Symbolic racism: In P. A. Katz & D. A. Taylor(Eds.),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pp. 53-84). New York: Plenum.
- Sears, D., & Kinder D. R. (1971). Racial tension and voting in Los Angeles. In W. Z. Hirsch(Ed.), *Viability and prospects for metropolitan leadership*. New York: Praeger.
- Sigall, H., & Page, R. (1971). Current stereotypes: A little fading, a little f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247-255.
- Taylor, S. E. (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he stereotyping. In D. L. Hamilton (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pp. 87-114). Hillsdale, NJ : Erlbaum,
- von Hippel, W., Sekaquaptewa. D., & Vargas, P. (1995). On the role of encoding processes in stereotype maintenance.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7, pp.177-254), New York: Academic Press.
- von Hippel, W., Sekaquaptewa. D., & Vargas, P. (1997). The linguistic intergroup bias as an implicit indicator of prejud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90-509.
- Weitz, S. (1972). Attitude, voice, and behavior: A repressed affect model of interra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4-21.

Measurement of Regional Prejudice by Implicit Association Test

Young-Oh Hong and Hoon-Koo Le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and
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plicit and explicit regional prejudice. On the study 1, participants from inter-hostile region were measured implicit prejudice by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the explicit prejudice by self-report. Participants showed a preference for own region over the other region on the implicit measu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implicit and the explicit regional prejudice. On the study 2 and 3, also participants who were not members of the inter-hostile region showed no correlation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regional prejudice. It wa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s of the implicit prejudice was not because of the stereotypical knowledge and perception difference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ocially sensitive attitude such as regional prejudice should be tested by the implicit measure.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Implicit Association Test, Stereotype, Prejudice

〈부록〉 암묵적 연합검사에 이용된 단어

긍정 또는 유쾌한 단어

자유 건강 사랑 평화 친구 환호 은혜 용기 행운 충성 만족 정직 친절 기적 축제 행복 미소 휴가 영예 선물 상장
햇살 낙원 안정 칭찬

부정 또는 불쾌한 단어

학대 충돌 오물 살인 환자 사망 비애 모욕 고장 악취 폭행 재난 증오 오염 비극 위반 감옥 빈곤 폐암 악몽 죽음
부패 구토 고통 좌절

전라도 상징어

전라도 호남 전북 전남 해태 무등산 광주 판소리 전주 목포 호남선 남원 여수

경상도 상징어

경상도 영남 경북 경남 롯데 낙동강 부산 해운대 대구 경주 경부선 포항 울산

원고 접수: 2001년 1월 4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